

第24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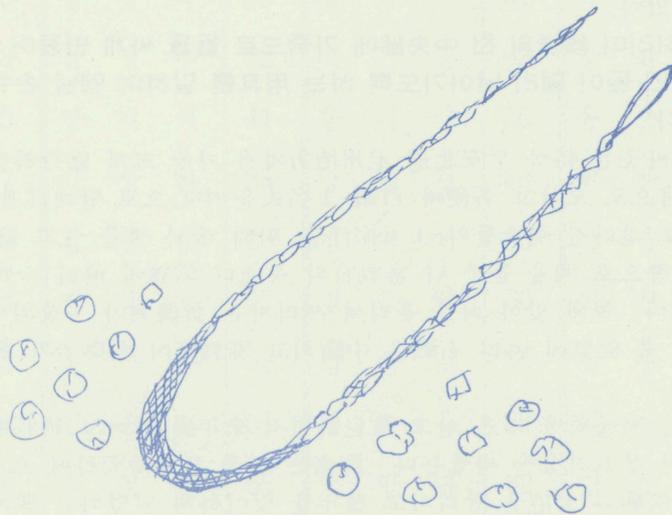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日 時：1983. 10. 18~20

場 所：安東市 市民運動場

出演種目：달래강 망패싸움 놀이

出演人員：80名



平安北道民俗保存會

解 說 文

種 目 : 「달래강 망패싸움」 놀이

우리 겨레의 哀歡과 祖上들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素朴한 固有文化로 綿綿이 이어온 “망패 싸움(石戰) 놀이는 庶民大衆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民俗놀이의 하나이다. 모든 文化藝術이 그러하듯이 이 “망패싸움” 놀이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祖上들이 오랑캐의 侵害로부터 鄉土를 지키기 위하여 손쉬운 自衛手段의 하나로 平素生活을 통하여 部落民의 協同心과 運命共同体意識을 涵養하는 訓練의 一種으로 發展되어 온 것이다. ”

正月 대보름날 或은 5月 5日 端午節을 期하여 部落單位로 젊은 靑壯年들로 東軍, 西軍으로 便을 지어 개천을 사이에 두고 “망패싸움”이 벌어진다.

이와 같은 石戰은 우리나라 몇 地方에서 볼 수 있으나 망패를 使用하여 石戰을 하는 곳은 平安北道 地方뿐이다.

地理的으로 本道는 北쪽 邊方에 位置하여 우리의 祖上들은 恒常 오랑캐의 侵略을 받게 되어 줄 곳 國境 地帶인 自己部落을 지키기 위하여 一方 싸우면서 生業에 從事 하여야만 했다.

千里山城을 爲始하여 白馬山城等 50餘個의 山城이 鴨綠江 周邊 및 各 고을마다 築城된 것이 많다는 것과 平安道民의 氣質이 猛虎出林이라는 것만 보아도 이를 잘 證明해 주고 있다.

“망패”란 허리띠 模樣의 천 中央部에 가죽으로 돌을 싸게 만들어 빙빙 돌리다 한 쪽 끈을 놓으면 돌이 멀리 날아가도록 하는 用具를 말하며 옛날 손쉬운 무기로 使用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싸움은 特히 平安北道 定州地方에서 가장 크게 盛行하였다. 部落의 年長者를 審判官으로 모시고 各便에 首領 1名式을 中心으로 달래강을 사이에 두고 東軍과 西軍으로 갈라진 勇士들의 士氣振作을 위해 술과 떡을 들고 周圍를 몇 바퀴 돌며 소리와 춤으로 興을 돋군 뒤 審判官의 북소리 信號에 따라 一齊히 돌 “망패싸움”이 시작된다.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負傷者가 속출되며 싸움이 絶頂에 達했을 때 북 信號에 따라 石戰은 中斷되고 審判官이 負傷者의 數에 따라 勝敗를 決定한다.

이때 敗者는 억울함을 땅을 치고 歎息하면서 來年에 기여코 勝利할 것을 다같이 다짐하고 敗한 부끄러움을 되씹는다. 勝者는 더욱 意氣冲天하여 오랑캐의 侵略을 막고 部落의 疾病과 災厄을 물리치고 豊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興겨운 소리와 춤으로 이 놀이는 끝을 맺는다.

考證 石戰考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孫 晉 泰

1947年 8月

乙酉文化社

出 演 者 名 單

성 명	연령						
유 재 영	61	이 춘 려	38	차 규 찬	61	전 두 일	52
변 구 식	63	한 근 내	45	김 정 경	59	허 남 호	62
김 병 열	65	심 상 순	38	최 원 옥	58	문 경 중	63
정 왕 근	39	이 종 여	38	이 내 성	56	강 상 태	62
김 경 복	60	김 하 운	42	한 영 희	58	신 찬 균	59
이 인 성	62	김 섭	55	이 의 열	59	박 봉 태	60
한 기 석	65	강 명 목	52	장 기 순	56	김 병 옥	56
김 순 식	60	차 금 애	47	최 덕 윤	61	김 완 식	56
이 명 상	57	정 순 호	45	서 병 길	63	강 명 필	52
한 상 원	65	김 정 숙	52	김 익 흥	61	이 동 훈	21
이 영 표	38	김 진 주	42	이 근 영	62	강 희 명	20
구 예 신	55	장 지 석	41	윤 기 야	56	유 승 진	20
유 이 호	37	이 성 화	23	강 상 원	60	최 용 주	58
박 성 린	30	김 영 수	23	김 영 백	56	강 승 희	56
이 두 영	24	김 봉 찬	52	김 향 락	60	이 원 흥	62
전 북 녀	52	유 명 수	53	김 승 일	56	전 수 응	64
김 대 자	37	김 종 선	51	김 유 응	52	김 이 철	60
유 옥 희	40	박 영 훈	55	백 일 관	62	김 상 명	61
성 하 수	41	이 승 언	49	이 인 숙	45	윤 철 호	54
윤 종 순	38	이 명 숙	60	원 병 필	60	이 창 룡	56

祝

平安北道 民俗保存會 任員

顧問	宋志英	諮問委員	趙東濬	理事	張壽根
"	桂憲	"	玄履福	"	李秉玉
會長	康祥福	"	李文煥	"	金成鳳
副會長	李東杓	"	崔希泰	"	李煌禧
"	金慶浩	"	趙熙甲	"	林士聖
諮問委員	金興龍	"	金京鈺	"	梁得善
"	洪澤禮	理事	玄宅文	"	高大濬
"	洪承泰	"	金信福	"	金載俊
"	劉景華	"	白樂鈞	"	金相國
"	朴珍滿	"	金秉樹	監事	金鼎由
"	金泰峻	"	李東榮	"	崔千根

祝

發

展

平安北道知事	李	碩	峰
平安北道中央道民會長	安	明	連
平安北道中央體育會長	李	癸	河
平安北道中央婦女會長	李	桂	姪